



# 전 가 동 향

KOREA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 전기안전공사, 계측기 교정기관 선정

한국전기안전공사 계기표준센터가 최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국가교정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이번 국가교정기관 인정획득으로 전기안전공사가 계측장비의 정밀·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안전관리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디지털 전압전류계 등 측정기기 23종의 교정업무를 더욱 정밀하게 수행할 수 있어 국내 전기안전관리와 측정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계단식저항기 등 측정기기의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해 타 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아오고 있다”며 “이번에 전기안전공사가 교정기관으로 지정받아 보다 정밀한 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중진공, 해외진출 벤처기업 지원 강화

해외로 진출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강화돼 국내 벤처업계의 해외진출이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창업팀은 지난 23일 해외에 법인이나 사무소 등을 설치해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민간지원센터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자금지원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진공은 사업 수행기관과 벤처기업 두 부문으로 나눠 수행기관에 5천만원을, 업체에 2천만원을 각각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현지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 현지지원센터 운영비와 공동사업 수행비 등을 지원받는다.

벤처기업의 경우 현지 컨설팅 및 마케팅 비용과 전시회, 박람회 등의 참가비용을 지원받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정보도 제공받는다.



## 송변전설비 내진설계 적용

### 한전, 최근 실무 지침서 마련

한전이 '송변전 내진설계실무 지침서'를 발간하고, 이 달부터 신설되는 송변전 설비에 대해 적용에 들어갔다. 한전은 최근 일본 고베지진, 터키 지진, 대만 지진 등 주변국가의 지진 발생빈도와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리히터 규모 5~6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송변전설비에 대해서도 지진에 대비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99년부터 대책을 수립해 왔다.

실무 지침의 적용대상 설비는 154kV급 이상의 신설되는 송전설비와 변전설비용 기기 및 구조물과 이들을 지지하는 지반시설물로 △변전설비용 기기(변압기부싱을 포함한 애자형기기, 변압기본체, 축전기, 배전반 등 비애자형기기)△변전설비용 구조물(강재모선, 설비지지용강재골조, 기초 및 인접기기와의 연결장치 등)△송변전 설비용 전력구(철근콘크리트 지중구조물)△지반시설물(옹벽, 사면, 기초구조물) 등이다.

한전은 내진설계 관련 실무지침이 국내 최초로 시행됨을 감안, 향후 일정기간 운영하면서 실무진과 지진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최종 설계기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한전 “전력정보화” 시동

### 통합 플랫폼 구축 e비즈 활성화 나서

한국전력이 '통합'과 'e비즈니스 프로세스 확신'을 통한 전력 정보화를 추진한다.

한국전력공사는 경영 및 업무프로세스혁신(PI)의 일환으로 전사전자자원관리(ERP)·지식관리시스템(KMS) 고도화 및 통합과 지식거래제도, 전자상거래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e비즈니스 활성화로 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한전은 실시간 통합업무 시스템을 통한 정보화 수준 제고와 민원업무 개선을 위해 기존의 ERP시스템인 신재무시스템을 지사로 확대, 통합하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말 사내 정보시스템에 대한 컨설팅 작업을 실시한 한전은 신재무시스템의 본·지사간 확대 통합작업을 통해 전사 정보자원과 경영지표의 효율적인 공유 및 활용에 나선다는 목표다.

또 2001년부터 가동중인 KMS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지식 자산 측정모형을 개발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지식거래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전은 이와 함께 올해 B2B·B2C 부문의 e비즈니스 및 온라인 민원처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자동이체 종합정보 시스템, 전력분야 전자상거래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웹기반 송배전 자재정보 시스템, 송변전 지리정보시스템(GIS), 온라인고객관계관리(eCRM) 시스템 등의 순차적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 전기연구원, 중국 영제전기창과 국제공동연구수탁계약 체결

### - '7.2kV/2.5kA급 전력변환용 고전압 사이리스터 설계 기술' 개발

한국전기연구원은 지난 4월 17일 중국 영제전기창(永濟電機廠)에 '7.2kV/2.5kA급 고전압 직류송전용 사이리스터 설계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국제공동연구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전기연구원은 금년 5월부터 내년 3월까지 11개월동안, 7.2kV/2.5kA급 전력변환용 고전압 사이리스터 개발에 필요한 소자 및 공정설계기술 개발하기로 했다.

전기연구원이 개발키로 한 고전압 사이리스터소자는 일반 산업분야에서 전력변환용으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부품이며, 이 기간동안 고전압 직류송전(High Voltage Direct Transmission, HVDC)용 사이리스터와 소자의 고내압 구조설계, 과도상태 및 정상상태 설계변수 및 증폭게이트 구조설계 등을 포함한 소자 공정설계 기본기술도 중점 개발할 예정이다.

## 한전, 국제규격으로 'UP'

한전이 그동안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온 자체 규격을 IEC 등 세계적인 규격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해 국내 전기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한전은 국가 규격인 KS와도 다른 한전 규격을 자체적으로 설정, 이를 국내 전력기자재의 표준으로 만들어 왔다.

하지만 한전 규격은 우리나라 전력산업 현실에만 적합할 뿐 해외수출에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한전은 3~4년 전부터 한전 규격을 국제규격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수행했다.

한전 관계자는 "주요 기자재와 전력기기를 중심으로 한전규격을 국제규격 수준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이 사업에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기자재 업계에서는 이같은 한전의 움직임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전으로부터 기자재 인증시험을 받기 위해선 많은 절차와 시간, 그리고 비용이 필요하다"며 "가장 큰 전력기자재 수요처인 한전이 규격을 제 마음대로 바꾸면 전체 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전은 국제규격에 맞추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의 국제규격화 노력이 결국은 국내 전기계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그동안 내수시장에만 치중하던 기자재 업계의 영업전략도 해외수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